

“왜 동성애자가 노동자 투쟁에 결합했는가?”

- 연세대학교 성정치위원회 the other의 발제

노동법 투쟁은 노동자들만의 문제인가....

- 노동법의 가부장성을 폭로하며

1. 이번 총파업 투쟁을 되돌아보며...

이번 노동법 투쟁에 있어서는 고무적이었던 부분들이 몇몇 눈에 띄인다. 성정치적인 관점에서 몇가지를 꼽아보자면 우리 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으로 자신의 억압을 이야기하며 노동자 투쟁에 결합했던 점, 여성 단체의 주도로 주부들이 노동법 개악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거리 시위를 했던 점 등을 꼽을수 있겠다.

전자의 경우는 은밀한 퇴폐 문화와 정상/비정상 논쟁으로만 인식되던 동성애 담론에 새로운 시각 즉 동성애자 역시 자본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제적 위치를 가지며 그들을 억압하는 가부장적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사회적, 정치적 발언 및 운동을 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스럽지만 신선(?)하기 짝이 없는 시각을 부여하였다. 후자의 경우 내 남편, 내 가정, 내 나라를 우려하는 일대 중산층 주부계층의 활동이었기에 그 의미가 축소될수 밖에 없지만 사적 공간, 가정에 갇혀버린 여성의 대사회 발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경우 다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의 존재와 힘을 새삼 확인할수 있었던 부분이었다.

2. 여전히 숨어있는 목소리들!!

하지만 이번 노동법 개악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계층들의 목소리는 들을수 없었다. 우리 사회에서 주변부 노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들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를 망각하는 것은 아니다.) 취직병을 앓고 있는 수많은 대졸 여성인력들, 어렵사리 회사에 취직이 되어도 여성인 이유 하나로 주변부로 밀려나는 여회사원들, 일용직, 파트타임 노동 등으로 생계 보조하는 주부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또한 폭력적 가부장제와 저임금 노동에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육체마저 파는 매매춘여성 역시 전혀 무관한 이들이 아니다.

3. 우리 사회의 분업 체계는 철저한 성별 분업이다.

역사적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는 상호 보완하여 기득권의 이익에 철저히 봉사하며 맞물려 돌아갔다. 사회적 재생산 문제에 있어 여성은 가정의 한켠에서 임금을 받지 않고 성적 서비스, 가사 노동과 2세 양육을 해왔다. 그녀들의 소외된 노동은 모성애라든가 스위트 홈으로 표상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구조로 정당화되었으며 여성은 사회의 전형적인 여성 지위(어머니, 아내, 성적 대상)를 스스로 내재화하였다. 노동인력으로서의 그녀들은 인력 수요가 높아질 때는 남성의 절반 정도의 임금에 고용되어 노동수요를 보충하였으며 인력 수요가 낮을 때는 다시금 가정으로 내쫓기는 상당히 탄력적인 유휴노동력으로 존재하였다. 임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재생산에 충실했으며 저임금으로 고용되어

노동시장 안정에 커다란 기여(?)을 했던 것이다. 또한 여성은 우리 나라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성상품화를 통한 외화 획득의 도구로도 활용되었다.

한국의 여성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다. 60년대 초기 산업화에서 현재 9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노동자는 저임금 고용 불안정, 단순노동(가내노동 포함), 결혼 퇴직제 등 다양한 성차별적 노동 문제로 고통받아 왔다. 90년대 이후로는 전 연령의 여성이 노동력화되면서 시간제 노동, 파견 근로, 임시직 등 다양한 노동형태에 기존 노동자들이 결합하였다. 이러한 직종의 경우 남성의 60%, 정규직의 절반에 해당되는 임금으로 사측은 비용절감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결국 이는 성별 차이를 이용한 가정과 생산 현장에서의 이중 착취인 셈이다.

4. 주변화된 노동 - 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주변화시키는 노동법 개악!

이런 맥락이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 개정이 반동적인 이유는 그동안 꾸준히 여성계에서 요구해왔던 평등강화와 여성 보호의 확대 조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평등 강화와 여성보호책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변형근로제, 무급 생리휴가 등은 저임금 미숙련 노동으로 영세, 미조직 사업장 등 열악한 환경에서의 노동력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 노동자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변형 근로제를 예를 들면 시간 외 근로 수당이 지불되지 않는 연장 근로가 많아지게 되면서 여성 노동자의 임금은 크게 줄어 들게되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순환 구조 내에 엄청난 노동 강도를 감내하는 동시에 가사 노동과 양육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은 불규칙한 근무 시간으로 인해 가정 생활과의 양립에 있어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경쟁력 강화의 명분으로 우리 사회는 개인에게 고통 분담을 뻔뻔스레 요구하고 있다. 명예퇴직 바람과 함께 불어온 아버지 신드롬이나 가족의 환상을 자극하는 일일 가족 드라마, 각 기업과 언론에서 요란을 떨고 있는 아버지, 남편 기살리기 운동, 가정을 살리는 아내의 창업 돌풍을 기억할 것이다. 가부장의 흔들림을 사회 분위기로 물고가면서 그 해결책을 가족과 여성(생계 부양자로서 곳곳한 남성 가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들은 국가와 가족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던가!! 아내, 가사 노동자로서 여성은 자신의 노동을 착실히 함은 물론, 흔들리는 가장을 따뜻함으로 받아주어야 한다.)에게 떠넘기고 있다. 여성의 가사 노동과 양육 그리고 노동의 이중 착취의 이면을 가린 채 여성의 희생을 미화하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는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뒷받침하여 여성 억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5. 새로운 연대를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내부순환과 착취, 재생산을 위해 가족제/ 가부장제와 공모하는 지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성과 노동은 별개가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노동법 총과업에서 여성들과 동성애자들의 연대 투쟁이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이다.